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26
MAY 8 2020

발간년월 2020년 5월 8일 (통권 제126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2025년까지 북동항로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러, 북극항로 인프라 등 대규모 건설사업 조기시행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 전망
- 1분기 극동항만 석탄 처리량,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 러 철도공사, 중국 선양-오스트리아 물류시스템 확대
- 카자흐스탄, 1분기 카스피 해 항만 물동량 8% 늘어

주요 통계

- 2020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 2025년까지 북동항로(NSR)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러시아는 북극 위성통신 시스템 향상 통해 북극해 항행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a)}

- 러시아 연방 우주청인 로스코스모스(Roscosmos)는 2025년 12월까지 북극을 위성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탐사할 수 있는 위성시스템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음
- 로스코스모스는 이 시스템이 현재 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북위 80도 이상의 지역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를 위해 4기의 ‘익스프레스-RV(Express-RV)’ 위성을 2025년까지 배치할 예정임
- 고도의 타원궤도(elliptical orbit) 시스템으로써 러시아와 북극 모든 지역의 고정된 모바일(fixed and mobile)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것임
- 한편, 새로운 위성시스템은 채빙선, 상선, 연구탐험선, 구조선, 연안경비선 등 북극해를 횡단하는 선박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할 것임
- 나아가 로스코스모스는 세 기의 ‘리소스-PM(Resource-PM)’ 위성과 세 기의 ‘콘코드-람(Concord-FKA)’ 위성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극항로 자동식별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과 원격 탐사 시스템 체제를 개선할 계획임

■ 러시아 북극 위성네트워크 구축은 ‘2019~2022 연방 우주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됨^{a)}

- 러시아는 또한 2020년 12월에 수문기상학(hydrometeorology) 시스템인 ‘아틱-M(Arctic-M)’을 우주 궤도에 발사할 예정임
- 이 시스템은 얼음 유빙의 단기 예측을 포함한 고해상도 수문 기상 자료를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기여할 예정임
- 또한 2021년 6월까지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의 선박 관리를 위해 북극에 통합 파견센터를 개설할 계획임. 센터는 모든 위성과 지상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박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하게 됨

- 러시아 정부관계자는 위성 모니터링이 북극항로에서 선박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은 '2019~2022 연방 우주 프로그램(Federal Space Programme)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 정부는 북동항로를 항행하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모든 선박은 러시아가 설계한 위성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관련국에 이미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부연구위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guan72@kmi.re.kr/051-797-4787)

참고자료

- a) <https://dredgingandports.com/news/2020/russia-details-plans-for-satellite-monitoring-of-the-nsr/>(2020.4.24. 검색)

러, 북극항로 인프라 등 대규모 건설사업 조기시행 추진

■ 러시아는 2021년~2022년에 추진 예정인 대규모 건설사업의 일부를 2020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임^{a)b)c)d)}

- 마랏 후스눌린(Marat Khusnullin) 러시아 부총리는 예산 재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2021년~2022년에 착수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일부를 2020년에 조기 시행할 예정이라 밝힘
- 이에 따라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서유럽-서중국 고속도로(EZK) 연결,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및 시베리아횡단철도 현대화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이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후스눌린 총리는 특히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이 항만 건설과 항만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철도의 건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그림. 북극항로,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출처: https://vpk-news.ru/articles/54064?utm_source=finobzor.ru (2020.5.3 검색)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조기 시행을 위한 재원은 예산 재배정과 신규 투자자 확보를 통해 마련될 계획임^{a)b)c)d)}

- 후스눌린 부총리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의 조기 시행을 위한 재원이 2021년~2022년에 집행할 것으로 계획된 예산을 조정하는 것에 더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그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서유럽-서중국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참여할 신규 투자자를 유치

한 경험이 있음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은행과 펀드가 새로운 투자자로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앞서 러시아의 VTB 은행은 2019년 11월 서유럽-서중국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첫 구간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모스크바-카잔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소규모 도로 정비 및 신규 도로 건설사업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될 예정임^{a)b)c)d)}

- 후스눌린 부총리는 앞서 언급한 대규모 건설계획 이외에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2021년~2022년에 착수할 것으로 계획한 도로 정비 및 신규건설 사업 중 2020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임
- 이와 관련하여 4월 27일 진행된 하천 범람 및 화재와 관련한 각료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방도로 상태를 언급하며 도로 복구를 위한 수단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스눌린 부총리는 앞당길 수 있는 모든 건설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이준용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charmant9430@hufs.ac.kr)

참고자료

- a) <https://www.rbc.ru/business/28/04/2020/5ea6f5c99a7947a7b0e76c6a>(2020.5.3. 검색)
- b) <https://www.rbc.ru/rbcfreeneews/5ea6d68d9a794797014ce02d>(2020.5.3. 검색)
- c) <https://www.rbc.ru/business/10/02/2020/5e3d83999a794763c6d0d675>(2020.5.3. 검색)
- d) <https://tass.ru/ekonomika/7212119>(2020.5.3. 검색)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과 수요가 감소함^{a)b)}

- 4월 12일 미국은 러시아·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함께 세계 석유 생산을 10% 감축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가격과 수요 하락을 역전시키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반등시키는 데는 실패했음
- 1주일 후인 4월 20일, 미국 서부텍사스 유(WTI) 가격은 석유 저장용량(storage capacity)에 대한 압박으로 40% 하락한 배럴당 11달러를 기록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석유 시장 3대 공급처인 미국, 러시아, OPEC 국가들은 석유시장과 지정학적 측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영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영향 1 :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초과 공급이 지속될 것임^{a)}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석유와 가스의 공급은 증가한 반면, 화석연료 수요는 환경고려와 신기술 발전에 힘입어 줄어들고 있었음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스 에너지 가격과 수요를 계속 낮추고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수요는 늘 수 있지만, 공급 역시 충분해 에너지가격의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 주요 생산국 이외에도 중국은 자체 셰일 가스 및 석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프랙킹(fracking) 공정 시추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음. 결과적으로 중국은 향후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화 과정을 통해 과거 고립된 지역 간에 인프라 및 무역량이 증가했으며, LNG의 세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스는 국유 독점에 의해 정치화된 희소 자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글로벌화 된 상품이 되고 있음

■ 영향 2 : 미국, 에너지 초강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a)}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에너지 초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하고 있음. 미국의 목표는 LNG 수출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음
- 미국은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세계 석유 가격과 수요가 붕괴된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중장기적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단기

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국내 에너지 안보와 중동으로부터의 석유 의존도 탈피 정도의 성과만을 얻었음
- 반면, 러시아는 독자적인 가스 외교를 지속해 오고 있음. 우선 러시아로부터 터키로 운송되는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에 완공되었음. 또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드 스트림 2(Nord Stream 2)’ 건설은 계속 추진되고 있음. 이 두 파이프라인 건설은 양대 수출시장인 독일과 터키에 대한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주요 NATO 국가와의 양자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와 OPEC 국가 간 가격 경쟁은 미국의 소규모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생산자를 파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했음. 미국 내 다국적기업이 아닌 독립생산업체는 미국 석유산업의 83%, 가스 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 국익과 지정학적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국유기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많은 개인 에너지 기업 간에 차이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함. 국내 시장에서 독립적인 민간 업체 비율이 아주 높다는 점은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미국이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였음. 또한 미국의 독립생산기업이 낮은 에너지 가격과 낮은 수요에서 생존하거나, 대기업에 통합되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영향 3 : 러, 코로나19 영향 극복과 에너지 지정학 영향력 확보 나설 듯^{a)}

-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 시장 침체는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를 심화시켰음
- 러시아 재정수입에서 석유자원과 같은 천연 자원 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컸음. 특히 가스 수출은 독일, 터키,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의 국가와의 핵심적인 외교적·정치적 영향력 행사 수단이었음. 그러나 셰일 붐 이후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수요 감소는 러시아 재정수익, 시장 지분, 지정학적 위상에 타격을 주었음
- 러시아는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35 러시아 에너지 개발전략’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우월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했음. 그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가격 전쟁으로부터 최근 몇 년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보여준 정치적 영향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이뤄져 왔음
-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는 독일과 터키를 대상으로 ‘노드 스트림(Nordstream)’이나 ‘투르크스트림(Turkstream)’과 같은 지정학적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왔음. 현재 ‘노

드 스트림 2(Nordstream 2)' 사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루트를 대체하고, 독일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투르크스트림을 통해서도 NATO 회원국이자 오랜 미국의 동맹국을 러시아로 끌어들이고자 함

- 나아가 러시아는 2001년에 가스 분야의 OPEC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 수출국 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로 사무총장 국가를 맡고 있음

■ 역사적인 에너지 시장 격변, 에너지 강대국간 경쟁 확대로 이어질 듯^{a)}

- 세계 에너지 시장은 석유 가격과 수요 감소에 있어 유례없는 격변을 경험하고 있음. 향후 에너지 초과공급, 신규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과 전통적 에너지 강대국인 러시아와 OPEC 국가 간 경쟁은 다가올 에너지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김민수 부연구위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guan72@kmi.re.kr/051-797-4787)

참고자료

- a)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vid-19-spells-out-new-era-for-energy-markets/>(2020.4.24. 검색)
- b) 지정학 경제학자이며, 'The New Geopolitics of Natural Gas'의 저자인 아그니아 그리가스(Agnia Grigas)의 'Atlantic Council' 기고문(2020.4.20. 검색)

1분기 극동항만 석탄 처리량,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 코로나19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극동지역 항만 석탄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함^{a)}

- 러시아 전체 항만이 처리하는 물동량의 25%를 극동지역 항만이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통과화물은 58.6%, 수출화물은 6.3%, 수입화물은 2.7% 증가했음. 반면, 연안화물의 경우 21.1% 감소함^{b)}
- 평균적으로 극동지역 항만이 처리하는 화물의 75%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석탄 47%, 석유 24.3%, 석유제품 7%, 컨테이너는 7.5%를 차지함
- 알렉산드르 시니친(Aleksandr Sinitsyn) 전략연구센터 센터장은 주요 석탄 수요지가 아시아 지역이며, 러시아 석탄매장지에서 동부지역으로 운송된 석탄은 2018년 총 석탄생산량의 47%를 차지했으나, 2035년에는 65~68%가 될 것으로 예상함
- 나호드킨스키 항만운행사(나호드카 터미널 운행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해 220만 톤 석탄을 처리했음^{c)d)}

■ 러시아, '석탄산업 발전전략 2035'에 따라 석탄생산량 4억 8000만에서 6억 8000만 톤까지 확대 추진

- 알렉산드르 노박(Aleksandr Novak)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산업 발전전략 2035'에 따라 2019년 2억 2,000만 톤이었던 수출량은 올해 2억 9,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그는 2025년까지 약 1조 루블(약 134억 달러), 2035년에는 약 2조 5천억 루블(약 336억 달러)에서 3조 5천억 루블(약 470억 달러)이 석탄 산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전략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에 2억 5,000만~2억 7,000만 톤, 2035년에는 2억 6,000만~3억 3,000만 톤 규모의 석탄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러시아는 2025년 4억 8,000만~5억 2,000만 톤, 2035년에는 5억 1,000만~5억 9,000만 톤 규모의 석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영향을 배제한 예상 수치임

- 석탄 수출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수임. 전략연구센터장은 러시아 철도청의 입장에서 보면 석탄운송은 수익성이 낮은 편이지만, 생산자 및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규모는 교통인프라 투자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표. 러시아 석탄 예상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분	생산량	수출량
2025	484 ~ 521	250 ~ 279
2035	510 ~ 590	269 ~ 333

자료: <https://www.rzd-partner.ru/zhd-transport/news/postavki-uglya-na-eksport-v-porty-dalnego-vostoka-v-i-kvartale-vyrosli-na-1-1/>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 www.rzd-partner.ru/zhd-transport/news/postavki-uglya-na-eksport-v-porty-dalnego-vostoka-v-i-kvartale-vyrosli-na-1-1/(2020.5.7. 검색)
- <https://seanews.ru/2020/04/29/ru-gruzooborot-dalnevostochnogo-bassejna-v-marte-2020-perevalka-udobrenij-vyrosla-v-3-raza/>(2020.5.7. 검색)
- <https://biznes-gazeta.ru/?id=news.view&obj=afe40e961c5cad0c084576a303af7d3b>(2020.5.7. 검색)
- 나호드킨스키 항만운영사가 처리하는 총 석탄량의 50% 이상을 나호트카 항만을 통해 처리함

러 철도공사, 중국 선양-오스트리아 물류 시스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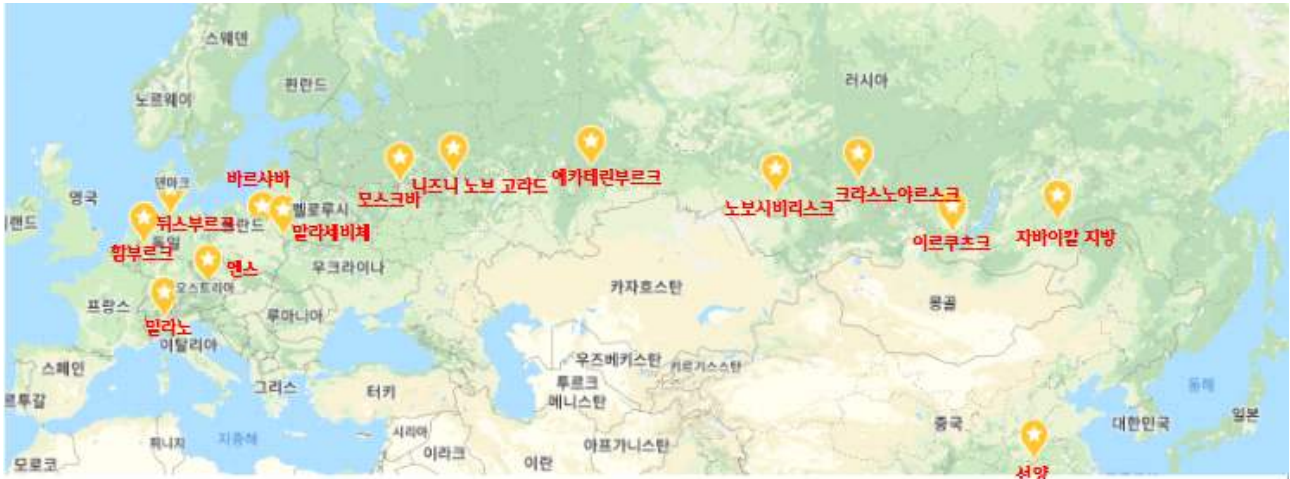
■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중국 선양부터 오스트리아 엔스까지 새로운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시작함^{a)b)c)}

- 러시아 철도공사는 중국 최대 물류 회사 중 하나인 시노트랜스(Sinotrans)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바이칼 지역을 지나 중국 선양에서 오스트리아 엔스까지 운행하는 새로운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음
- 새로운 노선의 첫 운행 열차는 3월 14일 중국에서 출발하여 4월 1일에 이 역에 도착함. 중국과 유럽에서 RZD 로지스틱스의 자회사인 극동랜드브릿지(Far East Land Bridge, FELB)가 열차를 운행했으며, 경로에 따라 두 번째 환적 화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음
- 2019년에 RZD와 시노트랜스 간의 계약이 체결되어 유럽이 중국과의 화물유통 회사는 물류 및 에너지 운송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함. 시노트랜스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 칭타오, 창사, 스룽구, 선양에 본부를 두고 있음

■ 러시아, RZD 로지스틱스 국제 수송시스템을 확대함^{a)b)c)}

- 4월 1일에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오스트리아 엔스에 도착한 열차는 1,435mm 표준궤로 운행되었으며, RZD 로지스틱스는 1,520mm 궤간으로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물류 컨테이너 및 산업 원자재를 운송하고 있음
-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RZD 로지스틱스의 기존 노선은 함부르크, 뒤스부르크, 말라 세비체, 바르샤바 및 밀라노까지 노선을 운행해 왔는데, 2020년 4월부터 오스트리아 엔스까지 노선 운행 및 운송 시스템이 확장되었음
- RZD 로지스틱스 물류총괄을 맡고 있는 드미트리 무레프(Dmitry Murev)는 “철도 노선의 지리적 확장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힘

그림.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RZD 국제 운송로



자료: <http://google.com.maps>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 <https://www.rzd-partner.ru/zhd-transport/news/rzhd-logistika-zapustila-novyy-tranzitnyy-konteynernyy-servis-shenyan-enns>(2020.4.25. 검색)
- <https://www.railwaygazette.com/freight/rzd-logistics-launches-shenyang-austria-transit-service/56243.article>(2020.4.26. 검색)
- https://www.rzdlog.ru/services/main/international_transit/(2020.4.26. 검색)

카자흐스탄, 1분기 카스피 해 항만 취급물동량 8% 늘어

■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는 1분기 카스피 해 항만 물동량, 구체적으로 대 아제르바이잔 물동량 자료를 발표했음^{a)b)c)d)e)}

- 2020년 1/4분기 악타우(Aktau), 쿠릭(Kuryk) 항의 대 아제르바이잔 항만물동량은 47만 5,000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 상승하였음. 한편 악타우와 쿠릭 항의 2019년 전체 물동량은 165만 5,000톤을 기록한 바 있음
- 이 중에서 쿠릭 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의 비중이 높는데, 쿠릭 항의 2020년 1/4분기 물동량은 36만 9,000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누적 2,138대의 차량(148% 상승)과 5,171량의 철도 화차(20% 감소)가 처리되었음
- 현재 카자흐스탄의 주요 종합 항만은 바우티노(Bautino), 악타우, 쿠릭 3개 항으로, 특히 쿠릭 항은 아제르바이잔 외에도 러시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의 항만과 연계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음. 쿠릭 항 건설은 2009년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 물류 센터 건설과 항만 내 철도 및 도로가 완공된 바 있음

그림. 카자흐스탄 주요 항만 위치와 악타우 항(위), 쿠릭 항(아래)



자료: <https://map.google.com>; <https://kuryk.kz>; <https://24.k>

■ 물동량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반 화물 운송은 유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악타우 항 측은 4월 3일부터 항만 시설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으며, 쿠릭 항의 경우 환자 급증을 이유로 이란 및 아제르바이잔 노선 운항을 중단했음. 다만 이는 여객선 운항만 중단한 것이며, 일반 화물과 식량, 의료품 등 구호물자 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한편, 2020년 4월 28일 기준 카자흐스탄의 총 확진자 수는 3,027명이며, 이 중 카자흐스탄의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는 망기스타우 주(Mangistau Region)의 확진자 수는 32명을 기록하고 있음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7 981-198-65-06)

참고자료

- a) <https://www.azernews.az/region/163878.html>(2020.4.28. 검색)
- b) <https://denizxeber.az/2020/04/28/qazaxistan-limanlarindan-az%c9%99rbaycana-yukasirmanin-h%c9%99cmi-aciqlanib/>(2020.4.28. 검색)
- c) <https://kuryk.kz/ru/proekt-kuryk.html>(2020.4.28. 검색)
- d) <http://www.portaktau.kz/en/>(2020.4.28. 검색)
- e) <https://informburo.kz/novosti/koronavirus-v-kazahstane-situaciya-na-28-aprelya-live.html>(2020.4.28. 검색)



주요 통계



표 1. 2020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9.8 (+6.4%)	6.7 (+0.5%)	16.5	+4.0%
북극해	2.4 (-5.7%)	6.2 (+1.5%)	8.6	-0.6%
발트해	8.7(-0.1%)	13.5 (+9.3%)	22.2	+5.4%
아조프-흑해	7.4 (-5.8%)	13.1 (-2.3%)	20.5	-3.6%
카스피해	0.3 (+33.8%)	0.4 (+60%)	0.7	+46.0%
합계	28.7 (+0.2%)	39.9 (+2.9%)	68.6	+1.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91375/> (2020.3.13. 검색)

표 2.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64,077.5	57,507.0	263,258.0	56,897.6	819.4	609.4
광물 제품	1,018,984.4	10,837.5	1,001,394.2	6,513.1	17,590.2	4,324.5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31,776.1	5,718.6	931,770.3	5,718.6	5.8	-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383.2	56,041.6	4,133.1	55,765.6	250.0	276.0
가죽원료, 모피 제품	3.1	2,465.0	2.6	2,455.0	0.5	10.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65,142.8	6,562.8	64,593.2	6,512.7	549.6	50.2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09.8	41,487.8	180.2	40,919.8	129.6	568.1
금속 및 금속 제품	38,121.6	41,192.3	38,088.8	40,000.0	32.8	1,192.4
기계류	10,884.6	325,291.4	10,400.7	324,793.5	484.0	497.9
기타	410,115.6	34,755.4	408,798.4	34,494.2	1,317.2	261.2
합계	1,812,022.6	576,140.9	1,790,849.2	568,351.4	21,173.4	7,789.5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2020.3.15. 검색)

표 3. 2020년 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99,387	137,527.8	2,132.9	2 133	99,333	137,477.9	2,132.9	2,133	54	49.9	-	-
연어류	1,332	3,414.2	-	-	1,332	3,414.2	-	-	-	-	-	-
넙치	263	1,480.5	-	-	263	1,480.5	-	-	-	-	-	-
가자미	1,453	1,603.8	-	-	1,453	1,603.8	-	-	-	-	-	-
가자미류	2,916	3,442.3	-	-	2,916	3,442.3	-	-	-	-	-	-
청어	15,621	11,180.9	-	-	15,567	11,131.0	-	-	54	49.9	-	-
대구	6,534	19,897.0	-	-	6,534	19,897.0	-	-	-	-	-	-
명태	68,100	89,713.1	-	-	68,100	89,713.1	-	-	-	-	-	-
농어	1	1.9	-	-	1	1.9	-	-	-	-	-	-
간, 곤이 (어란)	1,078	3,173.6	-	-	1,078	3,173.6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419	631.9	-	-	419	631.9	-	-	-	-	-	-
생선 필렛, 어육	2,465	7,018.3	937.6	938	2,465	7,018.3	937.6	938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0	0.6	27.9	28	0	0.6	27.9	28	-	-	-	-
갑각류	3,362	71,161.8	27.0	27	3,362	71,152.9	27.0	27	-	-	-	-

계류	2,811	66,794.1	-	-	2,810	66,785.2	-	-	0	8.8	-	-
조개류	2,365	9,552.4	-	-	2,365	9,552.4	-	-	0	8.8	-	-
가리비류	72	133.8	-	-	72	133.8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2,029	6,537.7	11.0	11	2,029	6,537.7	11.0	11	-	-	-	-
수산 무척추 동물	950	2,882.0	-	-	950	2,882.0	-	-	-	-	-	-
성게류	949	2,874.9	-	-	949	2,874.9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0.3.15. 검색\)](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0.3.15. 검색))